

— EIAK 소식 —

'94년 신개발 전자부품 전시회 개최

본회의 전자부품산업협의회(회장 : 엄길용)가 주최하고 상공자원부가 후원하는 '94 신개발 전자부품 전시회가 7월 11일~7월 13일까지 본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상공부 박수훈 전자정책과장, 엄길용 부품산업협의회 회장, 고명철 전자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정덕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장 등 많은 부품업체 및 수요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막되었다.

동협의회는 최근 엔화절상 등으로 수입원자재 가격이 상승됨에 따라 지금이 부품소재 국산화의 호기라고 보고 금년에 738억원을 투입해 새로 개발한 통신기기용 DC/DC Converter 등 모두 280개 부품과 국산화가 시급한 오디오용 Wafer Connector 등 190개의 수입부품, 그리고 업계간에 규격을 표준화한 Wide Vision용 유리 등 70개 부품을 포함해 모두 540개의 전자부품이 전시되었다.



동협의회는 신개발 부품을 전시함으로써 부품업체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국산화가 시급한 수입 부품을 전시함으로써 국산화를 촉진토록 하면서 동종 및 수급업체간 표준화를 통하여 원가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전시회를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 하였던 바, 작년에 신개발 부품 182개 품목보다 금년에는 100개 품목 가까이 많은 280개의 부품이 전시됨으로서 국산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부품업체 및 셋트업체의 대표, 개발요원, 구매 및 영업요원 등 3,000여명이 참관했으며 280개의 신개발 부품이 국산화로 대체 될 경우 연간 약 9억불의 무역 수지개선과 특히 약 8억불의 대일 역조가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셋트업체의 품목별 연간 구매계획과 조기 국산화 대상품목의 수요량 등을 부품업체에 알려 주므로써 부품업체의 기존제품 판매예측 및 수입부품의 조기국산화 자료와 '94년 한국의 전자부품 총람 자료를 국내의 참관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이동전화기의 기술기준 확인증명에 관한 제도 개선 건의

본회는 지난 7월 20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동전화 기술기준 확인증명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체신부에 제출했다.

본회는 삼성전자·금성통신·현대전자 등 국내 이동전화업체들로부터 이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을 수렴, 현행 무선 설비 기술기준 확인증명 제도가 과거 허가 및 준공검사를 거쳐야 무선국 허가를 얻을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간소화된 절차임은 분명하지만 세계 각국의 제도에 비해 여전히 문제점이 많은 제도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행정간소화와 소비자 편의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하게 됐다.

특히 무선국관리사업단에서 수검하는 기술기준 확인증명 항목중 대부분이 형식검정시 전파연구소에서 검사하는 항목에 포함돼 있어 한 기기에 대해 이중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술기준 확인증명을 받기 위한 수수료가 3만 1,000원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소비자가 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파연구소에서 형식검정을 받지 않은 기기에 대해서는 현행 기술기준 확인증명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되 형식검정을 받은 기기는 기술기준 확인증명을 수검하지 않고도 무선국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체신부측에 요청하게 된 것이다.

가전제품 개발, 생산단계부터 재활용 사전 평가 시행

본회(회장 : 구자학)는 TV, 냉장고, 세탁기 등의 폐가전 제품의 회수·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 가전업체가 신제품을 개발, 생산단계에서 그 제품이 폐기물화 되었을 때 회수·처리와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였는지를 점검 개선토록하고, 업체별로 시행한 실적을 본회가 종합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본회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약3개월에 걸쳐 전문가 워크샵 등을 통해 품목별 사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작성해 관련업체에 통보하고 업체별로 시행한 실적을 종합평가할 수 있도록 환경 및 재활용 전문가 7명으로 가전제품 재활용 사전평가심의회(위원장 : 송실대 도갑수 교수)를 구성해 동제도 시행에 모든 준비를 완료한 후 8월 1일부터 각사별로 일제히 시행에 들어 가도록 했다.

동제도의 대상품목으로는 우선 TV, 냉장고, 세탁기 등 3개품목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다른 모든 가전제품도 각사별 자체적으로 시행을 권유해 나아가기로 하였으며 평가항목은 제품의 중량 및 크기의 감소화, 소요 부품수의 축소,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소재의 사용정도,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부품소재의 재질표시 여부, 분해 분리 용이성, 파쇄처리의 용이성 등 모두 15개항으로 되어있다.

현재 이 제도는 일본의 일부기업들이 회사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을 뿐, 제도적으로 모든 기업이 시행하고 또 그것을 종합적으로 재평가하는 나라는 아직 없어 앞으로 그 성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

본회와 가전업체는 이 제도의 시행이 환경보전과 자원의 재활용측면에서 제조업체만이 할 수 있고, 이것이 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뿐 아니라, 친환경제품의 개발보급이 판매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동제도의 시행을 적극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며 특히 본회는 앞으로 폐가전 제품의 회수·처리 및 재활용의 용이화를 위한 효율적 기술개발과 개발기술의 보급에 주력해 나아갈 계획이다.

폐가전제품 회수·처리 위탁사업 전격 확대 실시

본회(회장 : 구자학)는 가전업체와, 작년에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폐가전품의 위탁 회수·처리사업을 국내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키로 함에 따라 서울 강북 등 8개 권역별로 폐가전품 회수·처리 및 재활용 전문업체인 한진슈레다(주) 등 8개사를 선정해 위탁 회수·처리계약을 체결하고 8월 1일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토록 했다.

그동안 폐가전품 처리사업자 20개사로부터 신청을 받아 2차에 걸친 심의 끝에 서울 강북에 대림자원(주), 서울 강서에 나래환경(주), 경기남부에 (주)대림, 인천에 원광실업(주), 강원·경기북부에 신한환경개발(주), 충청에 광명산업(주), 경상에 한진슈레다(주), 호남에 대지산업(주)를 위탁처리 사업자로 선정하고 가전업체와 이들간에 폐가전품 위탁처리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위탁처리 대상제품은 TV, 세탁기, 에어컨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점차 그 품목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본회와 가전업체는 폐가전품 회수 재활용 전문업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수요 보장을 위한 판매대리점을 통한 회수 협조, 사업 구역의 지정, 파쇄 등 시설확보 및 사업의 경제성 보장을 위한 환불된 예치금 지원, 정책자금알선 및 행정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한진슈레다(주) 등 8개 위탁처리 업체는 금년 12월까지 폐TV 16만 9,000, 폐세탁기 23만 2,000, 폐에어콘 6,000대를 회수·처리해 나아갈 계획이다.

본회와 가전업체는 '92년에 35억원의 예치금을 납부하여 예치금 환불액 100만원 상당의 회수처리(처리율 : 0.03%)를 했으나, '93년에는 하반기부터 전문업체 (대림자원)를 선정해 위탁처리 사업을 편 결과 34억원의 납부예치금 중 환불액 1,300만원 상당의 회수처리(처리율 : 0.4%)를 했고, 금년 12월까지 동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경우 금년도 납부예정 예치금 46억원중 환불액 4억원 상당의 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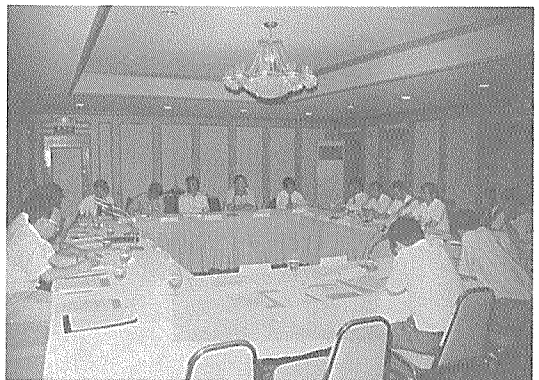
처리(처리율 : .7%)와 21억원 상당의 폐부품 소재를再生资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관 전자 통상 간담회 개최

본회는 지난 7월 8일, 9일 양일간 온양 도고 호텔에서 전자통상환경 변화에 대응 민·관 통상 협력 증진 방안과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본회 이상원 상근부회장, 금성사 구덕모 상무, 삼성전자 최건식 이사, 최수이사 등 업체 통상담당 임원과 정부에서는 상공자원부 미주통상과장, 생활전자과장, 외무부 이해민 서기관, 재무부 김동환 과장, 관세청 백남혁 서기관 등 정부기관에서 통상정책 수립에 직접 간여하는 정부관계자와 최초로 가진 대화의 기회였다는 점에서 동간담회는 의의가 깊었다.

한편 업계 대표들은 미국, EC 등 주요국의 대외 통상정책과 우리 정부의 대처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며 정부의 통상관련 담당자들은 대외 통상 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업계의 관심 분야 및 품목 등 현실감 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음으로써 민·관 통상 협조 체제에 일조를 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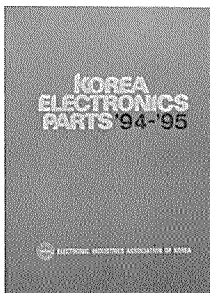


한국의 전자부품총람('95 Korea Electronics Parts) 발간

본회는 전자부품산업협회(회장 : 엄길용)는 지난 1년동안 엔화가 계속 절상(절상율 : 9.1%)되어 수입부품 소재 가격이 상승됨에 따라 수입부품 소재의 국산화가 전자업계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보고 셋트업계의 부품 구매계획 조사, 전자부품 소재의 표준화, 국산화 개발 자금 지원 및 신개발 부품지원, 국산화 촉진 대상 부품 전시회를 개최한데 이어 한국의 전자부품 총람을 발간해 실수요자인 바이어, 국내·외 셋트업계에 보급하기로 했다.

동협의회에 의하면 대부분의 전자부품 업계가 중소기업들이인 관계로 외국 바이어, 세계적인 셋트업계 심지어 국내 수요업계에 조차 국산화 부품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규격, 특성, 품질인증 등)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번에 한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부품의 각종 정보를 무료로 수록해 동총람을 일괄 보급하기로 한 것이다.

동총람에는 반도체, 전자관, PCB, 콘덴서, 스위치, 저항기, 변성기 등 76종의 전자부품 및 소재에 대해 260개사 생산 업체별로 외형, 타잎, 규격, 특성, 연락처 등 1,120페이지에 모두 영문으로 수록되어 있어 국내 전셋트업계의 개발실 및 구매부서와 외국의 바이어, 그리



고 세계적인 외국의 셋트업계에 동자료를 제공할 경우 우리 부품산업의 수출증대와 수입대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전산업협의회

동 협의회는 지난 7월 14일 본회 회의실에서 가전업계 회원사들이 참석, 현금환불제 시행에 따른 가전업계 회의를 개최했다.

지 난 7월 15일 동협의회는 본회 회의실에서 롯데전자 등 4개사가 참석, 특소세 관련 음향기기 업계회의를 개최하고 타품목과의 형평성을 중점 부각, 음향기기에 대한 특소세 폐지를 건의하기로 하였다.

부품산업협의회

브 라운관기술 표준화 위원회는 지난 7월 11일 본회 회의실에서 금성사 등 3개사가 참석, 브라운관 형명등록센터 설립에 관한 의견 수렴과 일본 EIAJ 방문 계획을 협의했다.

동 협의회는 지난 7월 25일 본회 회의실에서 금성사 등 10개사가 참석, Line Fiter 표준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SQE Type 세부 치수를 확정했다.

F BT 표준화 위원회는 지난 7월 27일 본회 회의실에서 삼성전기 등 5개사가 참석, FBT용 고전압 브리드 저항 규격을 협의했다.

CAV 기기 산업협의회

동 협의회(회장 : 동양텔레콤 배석채 사장)는 지난 7월 27일 국산 CATV 방송장비(방송용 카메라/VCR) 사용 촉진을 위해 상공자원부 등 관련부처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동 건의는 수요자(SO, PP)에 대한 국산 방송장비의 인식제고, 기술개발 투자 및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한 산업발전에 기여코자 한 것이다.

또한 국회 생중계 방송 System 및 연합 TV 뉴스에 대한 방송장비 예외 수입 허가 방침은 있을 수 없음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 난 7월 22일 동협의회는 상공자원부 회의실에서 정부관계자, 업계 등 20명이 참석, 가입자 컨버터 공급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컨버터 디스크램블러칩(ASIC 칩) 실시권 참여 방안과 가입자 관리시스템 신규 참여 업체 가입 조건 등을 협의했다.

통신산업협의회

동 협의회(회장 : 대우통신 박성규 사장)는 지난 7월 15일 무역클럽에서 대우통신 이흥주 이사 등 회원사 14명이 참석, 한불 전자통신산업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자통신 산업분야 한불 협력 사업 추진상의 방안을 토의했다.

지 난 7월 15일 동협의회는 본회 회의실에서 전한실업 이남용 연구소장 등 7명이

참석, 안테나 업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위성수신 안테나 업체와의 합작생산 등 협력과 관련 의견을 나누었으며 위성안테나 및 부분품의 수입선 다변화 제도 유지에 관한 업계 의견 등을 협의 했다.

F ax 산업분과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Fax 연구조합 회의실에서 금성사 김재훈 과장 등 8명이 참석 Fax 산업 발전 방안 수립 실무작업반 2차 회의를 개최하고 Fax 산업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방안을 협의 했다.

통 신산업협의회는 지난 7월 30일 무역클럽에서 회원사 제도관련 담당 임원들이 참석, 전기통신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통신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한국전기통신공사법 개정에 대한 통신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상공자원부 인사

통 상 정 책 국 장	盧 莊	愚
산 업 정 책 과 장	河 明	根
아 주 통 상 1 과 장	安 吉	元
아 주 통 상 2 과 장	李 起	變
생 활 전 자 과 장	張 賢	植
생 활 산 업 과 장	南 忠	祐